



《三國遺事》 <信忠掛冠> 條의 '前三國史'에 對하여

저자 (Authors)	이종문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14 , 1998.11, 447-466 (20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14 , 1998.11, 447-466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84607
APA Style	이종문 (1998). 《三國遺事》 <信忠掛冠> 條의 '前三國史'에 對하여. 한국고대사연구, 14, 447-46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8 16: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信忠掛冠〉條의 ‘前三國史’에 對하여

李 鍾 文
(계명대 한문교육과)

1

주지하는 것처럼 《舊三國史》와 《三國史記》는 여러모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史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富軾이 《三國史記》를 편찬할 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헌 중의 하나가 《舊三國史》였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도 역시 여러모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책이지만, 一然이 《三國遺事》를 집필할 때 참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헌 중의 하나가 《三國史記》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느 부분인지 꼭히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舊三國史》의 상당 부분이 《三國史記》에 수렴되었고, 《三國遺事》 역시 《三國史記》에 수렴된 내용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舊三國史》의 내용을 어느 정도나마 수렴하였다는 논리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三國遺事》에는 《舊三國史》에서 인용했음을 확실하게 명시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一然 스님이 《三國遺事》를 집필할 때 《舊三國史》를 직접 보고 활용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으며,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사학계의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 그 첫째는 《三國遺事》의 내용 가운데 《國史》와 《三國史》 등에서 인용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적지 않은 숫자의 조목들¹⁾

1) 문제가 되는 조목 및 그 동안 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가운데서 상당수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三國史記》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므로 적어도 해당 조목의 《國史》와 《三國史》는 《三國史記》가 아니라 《舊三國史》라는 주장이다²⁾. 다른 하나는 해당 조목들의 내용이 비록 《三國史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대부분 《三國史記》 내용의 선택적 조합과 다른 문헌의 개입, 오탈과 변개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적 첨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현재로서는 一然이 직접 《舊三國史》를 인용했다고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대목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³⁾.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모두 다 얼마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⁴⁾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사학사가 아니라 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문학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간간히 활용하여 왔을 뿐, 역사서 그 자체로서 연구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필자로서는 더욱 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문제를 다루어 볼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지리산 斷俗寺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三國遺事》〈信忠掛冠〉條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되면서부터다. 요컨대 필자는 다른 경우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信忠掛冠〉條에 인용되어 있

서는 李康來 교수가 아주 간명하게 정리한 바 있으며(이강래, 1996,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211~256쪽 참조), 필자는 이 교수의 업적에 힘입어 이 문제와 관련된 학계의 동향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의 이 논문은 부분적이거나 이 교수의 논의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 교수에게 큰 빛을 지고 출발하는 셈이다.

2) 李康來 교수에 의하면(이강래, 앞의 책, 211~256쪽 참조), 이와 같은 주장을 펼 대표적인 학자와 그 논문은 다음과 같다.

田中俊明, 1977, 〈三國史記 撰進과 舊三國史〉, 《조선학보》83.

강인숙, 1985, 〈구삼국사의 본기와 지〉, 《역사과학》1985 - 4.

洪潤植, 1987, 〈三國史記에 있어서 舊三國史의 諸問題〉, 《韓國思想史學》1, 思社研.

3) 이강래, 앞의 책, 211~256쪽 참조.

4) 이강래, 앞의 책, 211~256 쪽 참조.

는 ‘前三國史’는 어쩌면 《舊三國史》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짝막한 보고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의문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2

《三國遺事》의 〈信忠掛冠〉條 가운데서 주인공인 信忠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信忠이 지었다는 〈怨歌〉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부와 斷俗寺 창건을 중심으로 하는 후반부가 바로 그것이다. 본고는 그 가운데 후반부로부터 고증 작업이 시작될 것이나, 결국은 해당 條目 전체로 고증의 범위가 확대될 터이므로 매우 장황하고 번거로운 대로 전체 내용을 예시하되, 고증상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 (1) 孝成王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어진 선비였던 信忠과 함께 궁전 뜰에서 있는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다가 이렇게 말했다. “훗날 내가 만약 그대를 잇는다면 이 잣나무가 증언을 하리라”. 이 말을 듣고 信忠은 일어나서 절을 올렸다. 이런 일이 있던 지 겨우 몇 달 후에 왕이 즉위하여 공신들에게 상을 내릴 때, 信忠을 잊고 상을 주지 않았다. 信忠이 원망하는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다 붙였더니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말랐다. 이상하게 생각한 왕이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했더니 信忠이 지은 노래를 바쳤다. 깜짝 놀란 왕은 “내가 정치에 너무 바빠서 하마터면 〈角弓〉篇⁵⁾의 뜻을 잊을 뻔했군” 하고, 그를 불러서 벼슬을 내렸더니 잣나무가 다시 소생했는데,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뜰의 잣이 가을에 시들지 않으며 너를 어찌 잊을꼬 하시던

5) 〈角弓〉篇은 《詩經》小雅의 篇名인데, 幽王이 그 九族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아 骨肉의 원망을 사게 된 것을 풍자한 시임.

우려해보던 얼굴이 계시운데,
달 그림자가 옛 못(淵)의 가는 물결 원망하듯이
얼굴이사 바라보나, 누리도 싫은지고!⁶⁾

훗구는 전하지 않는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신충은 兩朝(孝成王과 景德王 - 필자 주)에 걸쳐서 충애를 받았다.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栢樹下 上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卽位 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王怪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栢樹乃蘇 歌曰 物叱乎支栢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月羅理影支古理因潤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兒史沙叱望阿乃 世理都 之叱逸烏隱第也 後旬亡 由是寵現於兩朝

- (2) 景德王(왕은 바로 孝成王의 아우이다; 일연의 주석임) 22년 癸卯(763년)에 신충이 두 벼과 더불어 약속을 하고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에 들어갔다. 왕이 두 번이나 불렀으나 나오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왕을 위하여 斷俗寺를 짓고 거기서 살았다. 죽을 때까지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면서 왕의 복을 빌기를 원하므로 왕도 마침내 허락하였다.

景德王(王卽孝成之弟也)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微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 願終身丘壑以奉福大王 王許之.

- (3) 초상화를 남겼는데, 지금 金堂의 뒷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그림이다. 단속사 남쪽에 俗休村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와전되어 小花里라 부른다. (<三和尚傳>을 살펴보면 거기에 信忠 奉聖寺에 관한 기록⁷⁾이 있어 이 기록과 더불어 서로 혼동이 되고 있다. 그러나 神文王

6) <怨歌>의 現代譯은 李東歡 교수의 것을 따랐음 (李東歡 역, 1994, 《삼국유사》, 도서출판 장락, 335~336쪽 참조).

7) 《三和尚傳》은 전하지 않으니 信忠 奉聖寺 설화는 《三國遺事》 제 5권, 神呪 제 6, <惠通降龍>條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 初 神文王發疽背 請僊於

으로부터 경덕왕 때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따져보면 백여 년이나 된다. 하물며 신문왕과 신충의 일은 전생의 일이므로 여기 이 신충이 아님이 명백하니 마땅히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일연의 주석임)

留眞 在金堂後壁 是也 南有村 名俗休 今訛云小花里。(按三和尚傳 有信忠奉聖寺 與此相混 然計其神文之世 距景德已百餘年 況神文與信忠 乃宿世之事 則非此信忠 明矣 宜詳之)

- (4) 한편, 《別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 때 直長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던 李俊(《高僧傳》에는 李純이라 되어 있다; 一然의 주석임)은 나이 현이 되면 반드시 출가하여 절을 지으리라고 일찍부터 발원하였다. 天寶 七年 戊子(748년)에 현 살이 되자 槽淵 가의 작은 절(을)을 큰 규모로 고친 뒤에 단속사라고 불렀다. 그 자신도 역시 중이 되어 범명을 孔宏長老라고 불렀는데, 이십 년 동안 이 절에 머물다가 죽었다”.

又別記云 景德王代 有直長李俊(高僧傳作李純) 早曾發願 年至知命

通 通至 呪之立活 乃曰 陛下曩昔 爲宰官身 誤決滅人信忠 爲隸 信忠有怨 生生作報 今茲惡疽 亦信忠所崇 宜爲忠創伽藍 奉冥祐以解之 王深然之 創寺 號 信忠奉聖寺 寺成 空中唱云 因王創寺 脫苦生天 怨已解矣(或本 載此事 於眞表傳中 誤) 因其唱地 置折怨堂 堂與寺今存.

- 8)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南孝溫이 1487 년에 9월 27일 단속사를 답사하고 쓴 기행문에 ‘槽淵에서 裸體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槽淵’은 단속사 터 앞으로 흐르는 시내에 있는 웅덩이 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설명하고 있는 槽淵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면 槽淵은 현재 단속사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다물민족학교 앞 시내에 있는 큰 웅덩이가 아닌가 생각된다.(南孝溫, <智異山日課>, 《秋江集》, 《韓國文集叢刊》16, 민족문화추진회, 122 쪽 ; 丁未九月二十七日癸亥 發晉州餘沙等村 赴斷俗寺 洞口有廣濟巖門四大字 不知何人所書…… 至槽淵 裸身入浴 水石清漑 淵北有泉 迸出石面 清冷異常 余掬手飲之 還出廣濟巖門). 따라서 ‘槽淵小寺’도 그 자체로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槽淵 가에 있는 작은 절’이라는 정도의 뜻일 것으로 생각되며, 南冥 曹植이 惟政에게 준 다음과 같은 詩도 최소한의 참고가 되리라 본다. 曹植, 《南冥集》 제 1권, <躡山人惟政>(한국문집총간 제 31권, 민족문화추진회, 465쪽) ; 花落槽淵石 春深古寺臺 別時勤記取 青子政堂梅

須出家創佛寺 天寶七年 戊子 年登五十矣 改創槽淵小寺 爲大刹 名斷俗寺 身亦削髮 法名孔宏長老 住寺二十年 乃卒.

(5) 이 기록은 ‘前三國史’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는 그 내용이 같지 않으므로 둘 다 남겨두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다.

與前三國史 所載不同 兩存之 闕疑.

(6) 讚하여 말한다.

공명이 끝나기 전에 머리칼이 먼저 희고
임금님의 사랑 깊으나 한 평생 바쁘도다.
언덕 저 편 산이 자주 꿈에 들어오니
맹세코 향불 피워 우리 임금 축원하리.

讚曰 功名未已鬢先霜 君寵雖多百歲忙 隔岸有山頻入夢 逝將香火祝
吾皇

보다시피 <信忠掛冠> 條는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여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제 (1) 단락은 信忠의 <怨歌>와 그 배경 설화가 중심 축을 이루고 있고, 제 (2) 단락은 信忠의 지리산 입산과 斷俗寺 창건 기록이 중심이 되어 있다. 제 (3) 단락은 一然이 사건 현장인 斷俗寺를 직접 답사하고 信忠이 남긴 왕의 초상화를 보았다는 것과 인근의 지명의 변천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단락에는 《三和尚傳》에 수록된 ‘信忠 奉聖寺’의 信忠이 斷俗寺를 창건한 信忠과 혼동되어 있다는 一然의 주석이 첨부되어 있다. 제 (4) 단락은 《別記》와 《高僧傳》에 ‘전삼국사’의 기록과는 달리 斷俗寺의 창건자가 李俊 또는 李純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그의 행적을 서술한 것이다. 제 (5) 단락은 제 (4) 단락의 기록이 ‘前三國史’의 기록과 다르므로, 따라서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

9) 제 (3) 단락은 이강래 교수가 이미 지적했듯이(이강래, 앞의 책, 272~275쪽) 일연이 현장인 지리산 단속사를 답사하고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므로 ‘전삼국사’의 내용일 수 없고, 따라서 《별기》와의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지 않으므로 ‘前三國史’의 기록과 제 (4) 단락의 기록을 함께 서술해 둔다는 내용이며, 제 (6) 단락은 斷俗寺의 창건자에게 바치는 一然의 讚이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 (5) 단락에 등장하고 있는 ‘前三國史’라는 史書의 이름이다. 왜냐하면, 金富軾의 《三國史記》가 간행된 이후에 이 《三國史記》와 구별하기 위하여 그 전에 나온 《三國史》를 《舊三國史》라고 불렀듯이, ‘前三國史’ 역시 같은 어법으로 사용된 용어로 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一然是 《三國史記》와 함께 ‘前三國史’를 보고 《三國遺事》를 쓴 셈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럴 경우, 적어도 현재의 상식으로는 이 ‘前三國史’가 李奎報의 〈東明王篇〉 서문에 나오는 《舊三國史》와 같은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만약 그렇다면 〈信忠掛冠〉條는 一然이 《舊三國史》를 보고 《三國遺事》를 집필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前三國史’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역사책의 이름이 아니라 ‘앞의 《三國史》’ 또는 ‘앞에서 인용한 《三國史》’, 즉 ‘제 (2) 단락에서 인용한 信忠의 斷俗寺 창건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三國史》’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도 《三國遺事》의 번역자들은 ‘前三國史’를 특정 역사책의 이름으로 보지 않고 ‘앞의 《三國史》’로 번역¹⁰⁾하여 왔으며,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바 있었던 양주동, 이기백, 이강래 교수 등도 모두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주동 교수 등 세 교수는 모두 여기서 말하는 《三國史》를 金富軾의 《三國史記》로 이해했으며¹¹⁾, 그 근거로써 《三國史記》新羅本紀의 경덕왕 22년(763년) 8월 條에 수록되어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0) 《三國遺事》는 번역본이 매우 많으므로 필자가 모든 번역본을 다 조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제명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번역본들은 모두 ‘前三國史’를 특정한 史書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앞의 삼국사’로 번역하고 있었다.

11) 양주동, 이기백, 이강래 교수의 입장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 팔월에 복숭아와 오얏 꽃이 다시 피었다. ㉡ 上大等 信忠과 侍中 金邕이 免職되었다. ㉢ 大奈麻 李純은 왕의 총애 받는 신하였는데 홀연히 어느 날 세상을 피하여 산에 들어가서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왕을 위해 斷俗寺를 짓고 살았다. ㉣ 후에 왕이 음악에 탐닉한단 소문을 듣고 즉시 궁궐로 달려가서 이렇게 간했다. “臣이 듣건대 옛날에 桀 임금과 紂 임금은 주색에 빠지고 음란한 음악을 그칠 줄 모르다가 정치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여 버렸다고 하니 앞 사람의 잘못을 보고 뒷 사람은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잘못을 고쳐서 스스로를 새롭게 하여 국가의 수명을 영원토록 하소서”. 왕이 이순의 말을 듣고 감탄하여 음악을 정지하고 正室로 불러들여 도의 오묘함에 대하여 들었고, 마침내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책에 대해 언급하여 몇 일 뒤에야 이를 그쳤다. 八月 桃李再花 上大等 信忠 侍中 金邕免 大奈麻 李純 爲王寵臣 忽一旦 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居之 後 聞王好樂 卽詣宮門 諫奏曰 臣聞 昔者桀紂 荒于酒色 淫樂不止 由是政事凌遲 國家敗滅 覆轍在前 後車宜戒 伏望大王 改過自新 以永國壽 王聞之感歎 爲之停樂 便引之正室 聞說道妙 以及理世之方 數日乃止¹²⁾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경덕왕 22년 8월 조의 기록은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복숭아와 오얏꽃이 때 아닌 때에 다시 핀 사건.
- ㉡ 信忠과 金邕이 면직된 사건.
- ㉢ 李純이 벼슬을 버리고 중이 되어 斷俗寺를 지은 사건.
- ㉣ 斷俗寺에 있던 李純이 궁궐로 달려와 왕에게 간한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은 그 하나 하나가 각각 고립적인 별개의 사건이지만, 인용문 속에 있는 ‘侍中 金邕免’의 ‘金邕免’을 “侍中 金邕이 면직되었다”로 해석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고유명사로 볼 경우, 왕을 위하여 단

12) 김부식, 《三國史記》 제 9권, 신라본기, 경덕왕 22년 8월조.

속사를 창건한 이가 신충, 김용면, 이순 등 세 사람의 집단으로 바뀌면서 단락의 수도 세 개로 줄게 된다¹³⁾. 그러나 이 부분은 문체 감각상 분명히 김용이 면직된 것이고, 더구나 《삼국사기》 해당 조목의 바로 앞 부분에 金崑이 시중으로 임명된 기록¹⁴⁾이 있으므로 ‘金崑 免’을 ‘金崑免’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단속사를 창건하고 은거했다가, 그후 언젠가 하산하여 경덕왕에게 실로 충심어린 간언을 했던 사람은 신충을 위시한 세 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李純 한 사람이다.

만약 그렇다면 一然是 어떤 문헌을 토대로 하여 斷俗寺의 창건자를 信忠이라고 기록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인용한 〈信忠掛冠〉條에 이미 나와 있는데, 인용문 가운데 (5)에서 볼 수 있는 ‘前三國史’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斷俗寺 창건에 관한 ‘前三國史’의 내용과 《三國史記》의 내용 사이에는 그 창건자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으며¹⁵⁾, 이것은 결국 ‘前三國史’가 《三國史記》와는 다른 문헌이라고 느끼게 하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동 교수 등이 ‘前三國史’를 ‘앞에서 인용한 《三國史記》’라고 보는 증거로 이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까닭은 一然禪師가 《三國史記》의 이 부분을 인용할 때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 양주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禪師는 三國史文의 〈免〉一字를 看過한 듯하다. 卽 三國史記原文은 信忠·金崑 兩人的 辭免과 李純의 避世 入山이 別個 事實로 敘述되어 있는데, 禪師는 〈免〉一字를 看過하여 信忠, 金崑, 李純 三人(或은 信忠, 金崑免, 李純 三人으로 誤讀한 듯)이 모다 〈爲王寵臣 忽一旦 避世 入山〉한 것으로 읽어 遺事에 그를 引할새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云云이라 한 것이다.¹⁶⁾

13)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으로 있음.

14) 《삼국사기》, 경덕왕 19년 夏四月 條; 侍中廉相退 伊浪金崑爲侍中.

15) 요컨대, 단속사의 창건자가 ‘전삼국사’에는 신충과 그의 두 벗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李純 개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셈임.

다른 한편으로 이기백 교수는 양주동 교수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三國遺事》의 기록은 “(양주동 교수에 의하여) 이미 지적된 바 있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 ‘뎡’자를 간과한 때문에 생긴 잘못”이라고 언급¹⁷⁾한 바 있다. 이강래 교수도 역시 이에 대하여 같은 견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는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 교수의 논지의 핵심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전삼국사》를 《구삼국사》와 동일한 용례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는 …… 경덕왕 22년에 신충이 斷俗寺를 세웠다고 하는 내용이 《삼국사기》 해당 년조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三國史記》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실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이것을 ‘《三國史記》 이전의 《三國史》’로 보아야 할 하등의 적극적 증거는 없다. …… 만약 (일연이) 《三國史記》의 ‘뎡’자를 간과하거나 그것을 ‘金邕뎡’이라는 이름으로 보거나, 혹은 ‘與’자로 오독했을 경우 (1)사건발생년; 경덕왕 22년. (2)斷俗寺 창건 주체 및 그 인물의 수효; 信忠 외 2인. (3)斷俗寺의 창건 목적; 경덕왕(의 奉福)을 위함. (4) 沙門이 되어 다시 나가지 않은 점 등 주요한 내용이 완전 일치한다. 그러므로 一然이 언급한 ‘앞에 인용한 《三國史》’는 틀림 없는 《三國史記》가 될 것이다¹⁸⁾.

이기백 교수와 이강래 교수의 견해 가운데는 주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인용문에서는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여 버렸으나 이기백 교수가 《三國史記》의 이순 관계 기록을 ‘後’자를 기준으로 분리하고, 여기에다 다시 《三國遺事》의 《別記》와 《高僧傳》의 내용을 참고하여 斷俗寺의 건립자를 이순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순이 斷俗寺를 건

16) 양주동, 1957, 《古歌研究(增補版)》, 박문출판사, 610~611쪽 참조.

17) 이기백, 1997, <景德王과 斷俗寺·怨歌>,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220쪽 참조.

18) 이강래, 앞의 책, 272~275쪽 참조

립한 시기를 748년으로, 이순이 斷俗寺에서 나와 왕에게 간했던 시점을 경덕왕 22년(763)으로 본 것¹⁹⁾은 참으로 타견이 아닐 수 없다. 역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여 버렸으나 《별기》 앞 부분에 사건의 현장인 斷俗寺를 답사했던 一然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이강래 교수의 주장도 물론 전적으로 타당하다²⁰⁾. 그러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 사이에는 ‘주요 내용이 완전 일치’할 정도로 이렇다할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前三國史’가 ‘틀림없는 《三國史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선뜻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三國遺事》의 문체가 비록 정통 한문과는 다른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문의 어법과 문체 감각상 ‘前三國史’는 ‘앞에 인용한 《三國史》’로 이해하기 보다는 ‘前三國史’라는 고유명사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아울러 一然이 《三國史記》 해당 부분의 ‘免’자를 간과 또는 ‘與’자로 오독하거나, ‘金邕 免’의 구두를 잘못 끊어 ‘金邕免’으로 착각함으로써 斷俗寺를 세운 사람을 세 사람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三國遺事》의 기록 중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오류가 이 단락에는 결코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특정 단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만은 아니며, 이 단락에서 그와 같은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더 낮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一然是 〈信忠掛冠〉 조의 제 (5) 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別記》 및 《高僧傳》과 ‘前三國史’ 사이의 내용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고민한 흔적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두 가지의 기록 가운데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끝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두 기록을 모두 남겨둘 정도라면 해당 기록들에 대한 一然의 검토는 매우 철저했다고 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別記》에 첨부된 주석에 의하면 一然是 斷俗寺를 창건한 인물

19) 이기백, 앞의 논문, 220~221쪽 참조.

20) 주석 9) 참조.

이 李純이라고 되어 있는 《高僧傳》을 본 바가 있으며, 그가 《三國史記》의 기록을 이런 저런 이유로 오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산하여 斷俗寺를 창건한 새 사람 가운데는 일단 이순도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前三國史’가 바로 《三國史記》이고, 그 《三國史記》를 토대로 하여 《三國遺事》를 집필했다면, 一然은 《三國史記》 해당 단락의 이순이란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一然이 간과 또는 오독하거나 구두를 잘못 떼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문제의 기사의 바로 직전에 김웅이 시중에 임명된 기록이 있으므로²¹⁾ 시중 ‘金崑 免’의 구두점을 ‘金崑免’으로 떼는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더욱 더 희박하다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유달리도 눈에 띄게 고증적인 자세로 <信忠掛冠> 條를 서술하고 있는 일연의 서술 태도로 보아, 그가 《三國史記》의 내용을 이런 저런 이유로 오독했다면 오독한 대로의 주석을 달아 단속사 창건에 관한 또 다른 이설을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른 바 오독이라고 하는 주장도 현존하는 《三國史記》 판본 가운데 ‘免’字가 지워져 간과할 만한 소지가 있거나, ‘興’字와 비슷하게 보이는 판본이라도 발견한 데서 제시되었던 개연성 높은 견해가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三國遺事》의 내용이 《三國史記》에서 온 것이라는 선입관을 바탕으로 하여, 《三國史記》를 《三國遺事》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연구하고 궁리한 끝에 도달하게 된 결론이란 점에서 그 신뢰도는 처음부터 매우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수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一然이 오독 또는 간과하거나 구두점을 잘못 찍었다고 볼 경우에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주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전삼국사’는 “틀림없는 《三國史記》”라는 주장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해당 부분을 조목별로

21) 《삼국사기》, 경덕왕 19년 夏四月 條; 侍中廉相退 伊滄金崑爲侍中. 이 기록은 경덕왕 19년 초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과 경덕왕 22년 8월 초 사이에는 너댓 줄의 기사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비교하여 정리·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34>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조목별 비교

史書 항목	《三國史記》	《三國遺事》
㉗	上大等信忠侍中金崑免大奈麻李純爲王龍臣	忠與二友相約
㉘	忽一旦 避世入山	掛冠入南岳
㉙	累徵不就	再徵不就
㉚	剃髮爲僧 爲王創斷俗寺居之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
㉛	해당 부분 없음	願終身丘壑 以奉福大王
㉜	해당 부분 없음	王許之
㉝	이순이 하산하여 경덕왕께 간함	해당 부분 없음

앞에서 필자는 一然이 《三國史記》를 오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 바 있거니와, 설사 오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삼국사’가 《삼국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문헌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표의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보면 두 기록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서 ‘忽一旦’이라는 막연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삭제되어 있고, ‘벼슬을 그만두고 은둔한다’는 의미는 같다고 하더라도 ‘避世’라는 말이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掛冠’으로 변개된 ㉘와, 표현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㉙같은 경우는 필자도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一然이 다른 문헌을 인용할 때도 다소간의 변개를 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㉘의 부분에서 《三國史記》에 막연하게 표현된 산이 ‘南岳’이란 구체적인 산으로 변개된 것도 이상하다면 매우 이상하지만 一然이 지리산 斷俗寺를 직접 답사한 적이 있고, 따라서 그가 아는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삼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三國史記》에서 입산하여 斷俗寺를 창건한 사건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수록되어 있는 간언 사건이²²⁾ 통째로 빠진 것도 《三國遺事》의 遺事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대목이 통째로 빠져버림으로써 두 자료의 뉘앙스가 다소 달라져 버린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컨대 《三國史記》에는 입산했던 이가 하산을 하여 충심어린 간언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三國遺事》에는 이 부분이 빠져버림으로써 斷俗寺에 들어간 후에는 한번도 하산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然이 《三國史記》를 보고도 이렇게 서술했다면 그가 다소 부주의한 서술을 한 셈이 되겠지만, 《三國遺事》에 부주의한 서술이 적지 않게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연이 오독한 《三國史記》에는 입산한 세 사람의 벼슬과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나 《三國遺事》에는 ‘信忠이 두 벗과 서로 약속을 하고’ 입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㉞는 중요한 차이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만약 一然이 《三國史記》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三國遺事》를 집필했다면, 그는 아무런 근거없이 세 사람의 관계를 벗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란 개념을 도입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三國史記》의 ‘여러 번’이 ‘두 번’이라는 구체적인 횟수로 바뀌어 있는²³⁾ ㉞의 경우는, ‘두 번’이 ‘여러 번’으로 바뀌어진 경우와는 그 변개의 성격이 크게 달라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며, 《三國史記》에 없는 ㉞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것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전체적인 문맥과 행간의 의미를 복원하여 일연이 첨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22) 諫言 사건의 비중이 入山 사건보다 크다는 것은 경덕왕 22년 8월 조에 수록된 두 사건 가운데, 그 시기가 경덕왕 22년 조에 해당하는 것이 간언 사건(이기백, 앞의 논문, 219~223쪽 참조)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입산 사건은 간언 사건을 서술하기 위한 도입부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 ‘再徵’의 ‘再’를 ‘거듭’으로 해석하면 ‘거듭’이 곧 ‘여러 번’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문의 어법 상 ‘再’는 두 번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한자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을 일연이 단속사 창건자의 話法으로 인용하여 자의적으로 첨입했을런지는 의문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곳은 ㉞부분인데, 보다시피 《三國史記》에는 입산자에 대한 왕의 허락 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三國遺事》에는 ‘王許之’가 첨가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약 一然이 《三國史記》를 토대로 하여 이 부분을 작성했다면 불확실한 畧수를 구체적인 畧수로 바꾸고, 없는 부분을 확실한 근거없이 첨입하는 자의적인 서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一然이 이와 같은 서술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는 문헌 상호간의 사소한 차이, 특히 잘못이 분명한 기록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버리지 않고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그 잘못을 밝히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²⁴⁾, 〈信忠掛冠〉條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것이 정확하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두 자료를 모두 기록해 두고 판단을 유보하는 서술 태도²⁵⁾를 보이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이 달라지는 변개를 함부로 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²⁶⁾.

끝으로 한 가지 첨언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信忠掛冠〉條의 내용 가운데 제 (1)단락이 물리적인 분량이 매우 많고 시각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24) 이것은 물론 일연의 역사 서술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밝힌 것이 모두 옳다는 뜻은 아니다.

25) 이점에 대해서는 이기백 교수에 의하여 크게 강조된 바가 있다. “일연은 여러 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그들 사이에 개재되는 차이점을 가리고 나아가서 자기 고증을 첨가함으로써 해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이기백, 1984,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117쪽 참조).

26) 이점에 대해서는 이기백 교수도 “전거를 제시한 인용문은 일연이 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분명 일연의 인용문에는 자구의 탈락과 변경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탈락이거나 오독이나 필사의 잘못에 의한 것이었지 내용의 변경은 아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기백, 198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123 쪽)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제 (5)단락에서 말하는 ‘전삼국사’에서 인용한 부분을 제 (2)단락, 즉 信忠의 입산 및 단속사 창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제 (1)단락도 ‘前三國史’에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1), (2) 단락이 모두 동일 인물인 신충의 행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문맥상으로도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높은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다음에 인용된 濯纓 金駟孫의 <頭流紀行錄>인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저간의 사정을 보다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다.

담의 서쪽 백보 지점의 수풀 속에 절이 있었는데 ‘智異山斷俗寺’라는 현판이 달려 있었다. 문에 들어가니 오래되어 닳아지고 깎여 매우 허술한 佛殿이 있었고, 그 벽에 면류관을 쓴 두폭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 절에 사는 승려가 이르기를 “신라의 신하인 柳純이란 사람이 벼슬을 버리고 몸을 던져서 이 절을 짓고 斷俗寺라고 부르고 그 임금의 초상을 그렸는데, <板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으나 내가 비천하게 여겨 살펴보지 않았다.²⁷⁾

이 글은 1489년 4월 18일 지리산 기행 중 斷俗寺에 들렀던 탁영 김일손(1464 - 1498)의 기행문 가운데 일부이거나,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주목된다.

첫째, 단속사의 창건자가 신충이 아니라 柳純으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류순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신충괘관> 조의 《별기》, 《고승전》, 《三國史記》 등의 여러 문헌에서 단속사의 창건자로 기록하고 있는 李俊 또는 李純과 동일한 인물²⁸⁾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7) 金駟孫, <頭流紀行錄>, 《濯纓集》 제 5권(《한국문집총간》 17집, 민족문화추진회, 260쪽 上); 垣之西上白步樹林間有寺扁曰智異山斷俗寺……入門 有古佛殿 龕斷甚樸 壁畫二冕旒 居僧云 新羅臣柳純者 辭祿舍身 創此寺 因名斷俗 圖其主之像 有板記在焉 余卑之不省

28) 姓이 ‘李氏’에서 ‘柳氏’로 바뀐 것은 오랜 구전 과정에서의 오류이거나, <板記>에는 李純으로 바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濯纓에게 정보를 제공한 승려

더구나 이 기록은 일연이 보았다는 그 초상화 그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사건 현장인 단속사에 여전히 증거물인 초상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속사 창건과 초상화가 남게 된 경위를 기록한 〈板記〉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건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쓴 濯纓의 이 기행문은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단속사를 지은 사람이 신충이라는 《三國遺事》의 내용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단속사의 창건자는 신충이 아니라 李純²⁹⁾

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승려는 李純으로 바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濯纓이 기행문 작성 시에 착각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濯纓이 유교적인 斯文意識 때문에 「板記」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29) 참고로 단속사의 창건자를 밝히고 있는 문헌과 이들 문헌에 나타난 창건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文 獻	創 建 者
一然이 인용한 ‘前三國史’	信忠과 그의 두 벗
三國史記	李 純
高僧傳	李 純
別記	李 俊
濯纓 金駟孫의 頭流紀行錄	柳 純

위의 표에서 柳純, 李純, 李俊 등은 수백년에 걸친 오랜 동안의 전승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로 인하여 그 이름이 달라져버리기는 했지만 모두 같은 인물로 보아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속사의 창건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문헌 가운데 신충을 창건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삼국유사》에 인용되어 있는 ‘전삼국사’ 하나 뿐인데 비하여, 《삼국사기》를 위시한 나머지 네가지 문헌들은 모두 단속사의 창건자를 李純(또는 柳純, 李俊)으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 다수결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절대 다수가 단속사의 창건자로 李純(또는 柳純, 李俊)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다섯 문헌들의 신뢰도인데, 이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正史인 《三國史記》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濯纓 金駟孫의 〈頭流紀行錄〉인데, 이 두 문헌이 모두 단속사의 창건자를 李純(또는 柳純)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단

임이 거의 분명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에서 더욱 더 주목되는 것은 탁영이 보았다는 초상화인데, 단속사를 지었다는 신충(그러나 실은 이순)이 ‘兩朝에 걸쳐서 은총을 받았다’는 (1)단락의 내용으로 보아 이 두 쪽의 초상화는 효성왕과 경덕왕의 초상화³⁰⁾임이 분명하다. 만약 그렇다면 제 (1)단락과 제 (2)단락의 핵심적인 사건이 비록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요컨대 <怨歌> 사건을 계기로 하여 두 임금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斷俗寺를 짓고 두

속사의 창건자가 信忠이 아님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기백 교수도 <신충패관>조의 ‘전삼국사’는 곧 《三國史記》이고, 《三國史記》에 斷俗寺의 창건자가 李純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속사를 짓고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李純이고, 信忠은 단속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로 추측한 바 있다(이기백, <景德王과 斷俗寺·怨歌>, 앞의 책, 219~223쪽 참조). 필자는 이 교수의 이와 같은 논증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논증 과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자 한다.

- 30) 단속사에 있었던 이 초상화에 대해서는 濯纓 金駟孫 보다 20여년 먼저인 1463년 靑坡 李陸이 단속사를 답사하고 남긴 <遊智異山錄>(《靑坡集》 제 2 권, 《韓國文集叢刊》 제 13권, 민족문화추진회, 441쪽~442쪽)에도 “……庭右有一閣 新羅所創 壁有四王畫像 金壁尙新……四王眞 甚奇古 非道子畫 卽金生筆 高麗名賢金富軾 鄭夔明 嘗遊于此 有詩在壁間”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다만 이 기행문에는 왕의 초상화가 네 개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濯纓 金駟孫의 기행문에 두 개의 초상화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版記’라는 확실한 증거물까지 있으므로 김일손의 기록이 지닌 신뢰성이 훼손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할 일은 아니지만, 나머지 두 개의 초상화는 고려 仁宗과 毅宗의 초상화가 아닐까 한다. 앞에서 언급한 김일손의 <頭流紀行錄>에 의하면 당시 단속사에는 고려 전기의 고승 大鑑國師 坦然에게 보낸 인종과 의종의 문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披寺之故 有白楮紙 連三幅 搗鍊精勁 如今之咨文紙 其一 署國王王楷 卽仁宗諱也 其二 署高麗國王王峴 卽毅宗諱也 乃正至起居於大鑑師狀也……; 金駟孫, 앞의 글, 260쪽 上 참조). 그리고 靑坡 李陸의 기행문에는 당시 단속사에 金富軾, 鄭夔明 등의 시가 壁間에 걸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인종과 의종의 신하라는 점도 이러한 견지에서 주목된다.

임금의 초상화를 남겼다고 보아야 마땅할 터이므로 제 (2)단락이 ‘前三國史’에서 나왔다면 제 (1) 단락도 역시 ‘前三國史’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적어도 현존하는 《三國史記》에는 제 (2)단락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설사 이 부분이 신라본기의 경덕왕 22년 조를 일연이 이리 저리 오독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게다가 각종 변개와 첨가가 더해져서 (2)가 되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三國史記》에는 제 (1) 단락에 해당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 이것은 결국 〈信忠掛冠〉조의 ‘前三國史’가 바로 《三國史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信忠掛冠〉조의 ‘前三國史’가 ‘앞에서 인용한 《三國史》’이고, ‘앞에서 인용한 《三國史》’가 金富軾이 편찬한 《三國史記》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一然의 오독이 전제되어야 하고, 설사 그 오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해당 내용 사이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특히 ‘여러 번’을 ‘두 번’으로 변개하고 《三國史記》에 없는 ‘願終身丘壑 以奉福大王’과 ‘王許之’ 등을 첨가한 것은 더욱 더 그렇다. 뿐만 아니라 〈信忠掛冠〉條의 제 (1)단락과 제 (2)단락이 별도의 문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前三國史’에서 나온 것임이 거의 분명하고, 《三國史記》에는 (1)단락의 내용이 경덕왕 22년 조 뿐만 아니라 그 여느 곳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信忠掛冠〉條의 ‘前三國史’가 金富軾이 편찬한 《三國史記》가 될 가능성도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信忠掛冠〉조의 ‘前三國史’는 ‘앞의 《三國史》’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특정한 역사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면 우리는 《前三國史》라는 또 하나의 史書와 마주하게 된다. 이 《前三國史》가 바로 이규보가 말하는 《舊三國史》와 동일한 책인지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舊三國史》와는 다른 《前三國史》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³¹⁾. 물론 사학계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一然이 《舊三國史》를 보고 《三國遺事》를 쓴 것이 확실해지므로 史書로서의 《三國遺事》의 성격은 다소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말하여 본다면, 《舊三國史》에 실려있는 <信忠掛冠>조가 경덕왕 때 일이므로 《舊三國史》에 발해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史書가 《三國史記》와 마찬가지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데서 끝나지 않고 통일 신라까지 서술되어 있음이 거의 분명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舊三國史》와 《三國史記》에 대한 막연한 추측³²⁾을 불식시키는 데도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31)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前三國史》라는 역사 책 하나를 더 가지는 셈이 될 것이다.

32) 예컨대 이우성 교수는 고구려의 멸망과 더불어 삼국시대는 끝나고 남북국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三國史記》를 통일신라 말기까지 서술함으로써 시대사적 성격을 흐려놓았다고 비판하고, “《舊三國史》를 볼 수 없는 지금에 있어서 이 오류의 시작을 《三國史記》에 돌릴 수밖에 없다”고 논한 바 있다(이우성, 1983, <三國史記의 構成과 高麗王朝의 正統意識>, 《한국고전심포지움》 제 1집, 일조각, 44~49쪽). 그러나 만약 ‘前三國史’가 《舊三國史》라면 이 교수의 이와 같은 논의에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